

격차해소를 위한 기제로서의 교육의 역할 분석

– 부모학력이 자녀취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중심으로 –

The Role of Education for Reducing Disparity : The Influence of Parent Education on Child Achievement and Employment

이상직(Lee, Sang Jik)* · 김철희(Kim, Cheol Hee)** · 이인화(Lee, In Hwa)***

ABSTRACT

Employment disparities appear as part of diversified social, cultural, and economic inequality. In South Korea, education functions as one of the strongest means to reduce socioeconomic disparities in its society. This study examined the influence of parent education on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and employment status, specifically permanent and contract employment status, in order to analyze to what degree parents' education affects socioeconomic disparities in employment of their children besides generation gap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is found that parents' education is partly related to children's education and employment, which implies that to some degrees educational benefits of parent generation affect their children's labor market entry. However, it was not able to examine whether the educational benefits directly affect children's employment status types, such as permanent or contract status. The result of this study indicates socioeconomic disparities and education gaps among parents can be related and extended to the next generation, because parents' level of education is found to have influence on children's labor market entry. This also implies that educational environment, passed down to the next generation, leaves socioeconomic disparities among children.

In order to reduce the disparities, not only is it necessary to promote work-centered and competency-centered employment and human resource management, but also develop and run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to grow and improve individuals' work competencies and capabilities. In addition, reforming labor market and education system is needed so as to provide equal and objective opportunities to all children despite one's socioeconomic status and background.

Key words: disparity reduction, educational gap, parent academic achievement, employment, employment status

*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교수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1. 서론

우리 경제는 1960년대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계속해 왔다. 정부주도, 수출중심의 산업정책에 기반하여 압축성장을 한 결과이다. 그러나 이는 대기업 주도로 이루어진 성장이었으며 이로 인한 대중소기업 간의 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과의 차이 등 사회계층 간의 갈등 요인이 상존한 상태가 지속되어왔다. 이 결과로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성장의 성과를 공유하고, 함께 나누는 통합의 사회정책과 지속발전 모델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양극화란 세력이 대립되는 층으로 분화 혹은 집중되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고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특히 발생하는 경향성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경제는 수출, 제조업, 대기업 주도의 성장으로 오늘의 발전을 이루었다. 이러한 성장 패러다임의 결과는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의 양극화, 분단화 된 모습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공공부문의 개입 여지가 큰 구도로 인해 산업구조 조정이 용이하지 않고, 미래산업과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준비와 역량이 길러지지 않는 상태로 지속되어 왔다. 이는 사회보장제도가 발달해 있고, 사회적합의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사회형평성 정도가 높은 사회구조를 갖고 있는 서구 선진국들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신분사회에서 학력사회로 옮겨가는 근대사회에서 학력은 가장 신뢰할 만한 능력판단의 기준이다. 학력사회란 학력이 사회구성의 핵심지표가 되고, 학력주의가 지배적 이데올로기로 작용하는 사회를 말한다(남인순, 2011). 전통적으로 교육은 인간의 진보와, 형성된 사회 내에서 신분 상승 혹은 이동 일반의 기제로 이해된다. 실제로 한국 사회의 경우 교육이 지닌 사회이동 기제로서의 위상은 큰 의심을 받지 않고 유지되어 왔다. 계급에 따라 학력이 결정되고 그 학력이 다시 계급을 결정짓는 주요 변수 중의 하나인 지금 그 동학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김태호, 2012).

본 논문은 경제사회의 고도화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불평등의 한 요소로서 격차에 주목하여 격차해소를 위한 다양한 요소 중 교육이 기여 혹은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분석하여 격차해소를 위한 교육 분야에서의 기여 방안을 제시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부모의 학력이 자녀의 취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해 부모세대의 교육 수혜 정도가 자녀 세대의 일자리와 임금으로 이어지는 노동시장 진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즉, 부모세대의 교육 격차가 자녀세대의 고용격차로 이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2. 선행연구 분석

교육은 소득 규모에 상관없이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공정한 물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길러진 인적 자원들이 국가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시스템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모든 학생이 부모의 재산이나 사는 곳에 관계없이 제대로 된 교육, 균등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그 목표라 할 것이다. 본 연구와 관련한 선행연구는 세대 간 소득이전 부분, 교육 생산함수 추정 등을 통해 가정 및 가족 배경에 따른 학력격차를 확인하고 정책적 개입과 그 성과를 확인하는 연구들이 많다.

교육격차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나타나는 계층 간 격차 외에도 지역 간 불균등발전이 반영되어 거주지가 서울 및 수도권이나 지방이나에 따라 나타나는 지역 간 격차의 형태로 나타난다. 먼저 계층 간 교육격차를 보면,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있지만, 어떤 고등학교를 진학하는지는 부모 경제력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고소득층은 저소득층보다 자녀에게 사교육을 받을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 뿐 아니라, 보다 고액의 사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입시 사교육이 허용되고 대학입시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대하면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자녀의 명문대 진학을 격차는 확대되었고, 교육을 통한 빈곤 탈출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지역 간 교육격차는 공교육과 사교육 모두가 현실적인 문제이다. 공교육여건은 학생 수 부족과 지역 내 고등학교의 부족으로 전학을 가는 실정이다. 사교육에서도 지역 간 격차는 심각하게 존재하여 학원의 수 또한 지역 간 편차가 크다(서보진, 2011).

PISA(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OECD에서 2000년 이후 3년 주기로 시행하는 국제비교평가) 자료에서 나타난 부모들의 학력 자료를 이용하여 부모 학력에 따른 자녀들의 성취도 격차의 국가별 차이를 검토해 본 결과, 우리나라는 부모 학력에 따른 학업 성취도의 차이가 적은 나라라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는 대졸 아버지의 자녀들과 고졸 아버지 자녀들 간 격차를 통해서도 확인되며, 고졸 어머니의 자녀들과 초등학교 졸업 어머니 자녀들 간 격차를 통해서도 발견된다. 하지만 학력 격차를 줄이는 요인이 무엇인지는 여전히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김진영 외, 2014)

한국청소년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부모의 학력이 어떤 경로와 과정을 거쳐 청소년 자녀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한 결과, 부모의 학력은 자녀의 학업성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부모자녀관계와 자아존중감 등의 변수를 매개하여 학업성취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빈곤은 자녀의 학업성취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비행과 부모자녀관계를 매개하여 학업성취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중섭 외, 2011).

실제 관찰된 불평등을 개인이 직면한 환경의 불평등에 기인한 부분과 개인의 노력의 차이에 의한 부분으로 분해하였으며, 아버지의 학력이라는 하나의 변수만을 고려하여 환경이 한국사회의 교육불평등과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추계하였다. 분석 결과, 아들세대의 학력불평등 중 16~59% 정도가 아버지의 학력이라는 환경의 불평등에 의한 부분으로 계산되었고, 임금율 불평등의 2~12%와 소득불평등 약 2~12% 정도가 환경의 불평등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제이 외, 2011).

아버지 학력이 개인의 교육투자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개인의 노동시장 성과를 직업선택, 노동력상태의 선택으로 설정한 후 가족배정의 대리변수로서의 아버지 학력이 본인의 학력수준과 본인의 노동시장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결과, 아버지 학력은 본인의 교육수준에 상당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아버지 학력은 본인의 직업선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 직업선택을 통한 부모 재산, 소득불평등의 대물림과 비경제활동인구화로 인하여 부모의 재산, 소득의 현재소비로의 유실이라는 불평등 대물림 단절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조우현, 2004).

외환위기 이후 소득의 양극화에 따라 빈곤층 등 교육취약계층이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으며, 교육취약계층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교육기회의 제약을 받게 되고, 결국 이것은 소득계층 간 사교육비 지출 등의 불균형으로 이어져 빈부의 대물림을 고착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다양한 교육정책을 수립·추진해왔다. 이러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폭 확대, 보다 다양성을 포괄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 마련, 지역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 확대 등이 필요하다(김한양 외, 2011).

3. 분석 자료 및 방법

분석 자료는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Korean Education & Employment Panel)를 활용한다. KEEP은 2004년을 기준으로 중학교 3학년,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실업계 고등학교 3학년 각 2,000명 총 6,000명을 대표성 있게 추출하여 10년 이상 추적 조사하는 종단면 조사이다. 이들 학생들과 더불어 학생들이 소속된 가구와 학교(담임, 학교행정가) 조사도 함께 병행한 자료이다. 이는 학생을 둘러싸고 있는 가족 구성원과 그 배경을 함께 고려하고,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학교 환경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고자 기획되었다. 또한 우리나라 청소년의 교육 경험과 진학, 진로, 직업세계로의 이행 등을 파악하여 유용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고, 교육실태, 교육효과,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관성 등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 및 바람직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1~3차 조사를 활용하여 부모의 학력이 자녀세대의 학력과 취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또한 10차 조사 결과를 추가하여 학력변화에 따라 현재(2013년, 10차 조사 시점에서)의 학력 및 취업의 질을 비교분석하였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격차 분석임을 고려하여 일반계고교생과 특성화고교생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표 1〉 조사 모집단

구분	총 학교수	제주도	도서·벽지	학생 수		조사 모집단
				0명	1~30명	
중학교	2,903	42	166	44	402	2,249
전문계고등학교	748	12	31	16	58	631
일반계고등학교	1,497	17	62	47	76	1,295
일반계	(1,297)	(17)	(38)	(39)	(36)	(1,167)
전문계 보통과	(200)	(0)	(24)	(8)	(40)	(128)
계	5,148	71	259	107	536	4,175

자료: 한국교육고용패널 기초분석보고서 1차년도 자료 분석(2005),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분석방법으로 부모학력이 자녀의 학력에 미치는 영향과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리하여 이항프로빗 모형으로 분석하고, 학력과 취업 선택이 개인(또는 부모의 권유 등에 따라)의 효용극화 과정을 통해 둘 중에 하나를 동시에 취사선택하는 행위인 것처럼 취업 시 정규직과 비정규직 또한 노동시장 진입 단계에서 선택의 문제를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이변량 프로빗 모형(Bivariate probit model)을 활용하였다. 실제 노동시장에서 종사상 지위의 선택문제는 또 다른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 현재와 같이 정규직 진입이 용이하지 않고, 양질의 일자리가 규모와 질에서 부족한 고용상황에서 노동시장 진입 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선택한다는 것은 용이하지 않은 선택지일 수도 있다. 그러나 부모의 학력이라는 외적으로 주어진 고정 환경이 노동시장 진입 시 종사상 지위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중요한 요소이다.

분석을 위하여 부모의 학력과 취업 결정요인 분석에 기초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상호관계를 구조적 모형(Structural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즉, 취업이라는 위험이 발생하는 것과 종사상 지위라는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 상호연계성을 갖는다는 모형을 설정하여 부모의 학력에 따른 취업과 종사상 지위의 상호관계를 추정할 것이다. 특히, 취업결정요인에서 부모의 학력이 취업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취업에 이은 종사상 지위 구분의 발생가능성을 이변량 프로빗 모형(Bivariate Probit Model)을 설정하여 추정하였다. 이 모형은 취업, 특히 종사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결정요인 중에서 부모학력의 영향을 구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분석을 위한 모형은 아래와 같이 설정한다.

$$\text{취업: } I_1^* = Z_1\gamma_1 + K\delta_1 + \epsilon_1$$

$$\text{종사상 지위: } I_2^* = Z_2\gamma_2 + K\delta_2 + \epsilon_2$$

여기에서 I_1^* 은 취업을 나타내고, I_2^* 는 취업에 이어 종사상 지위(정규직, 비정규직)에 이르는 경우를 나타낸다.

$$I_1 = \text{만약 } I_1^* > 0 (\text{취업}),$$

그렇지 않으면 (미취업)

$$I_2 = \text{만약 } I_2^* > 0 \text{ 그리고 } I_1 = 1 (\text{취업이면서 정규직}),$$

$$\text{만약 } I_2^* \leq 0 \text{ 그리고 } I_1 = 1 (\text{취업이면서 비정규직})$$

표준화에 의하여, $V(\epsilon_1) = V(\epsilon_2) = 1$ 이 되며, 위의 취업식과 정규직 여부식의 공분산 행렬은 아래와 같이 주어진다.

$$\Sigma = \begin{bmatrix} 1 & \rho \\ \rho & 1 \end{bmatrix}$$

외생변수로 구성된 Z 벡터는 I_1 과 I_2 에 영향을 미치는 별도의 변수 벡터를 의미하며, 변수 K 는 두 방정식에서 공통으로 포함되는 설명변수이다. P_j 의 확률은 미취업, 취업이면서 정규직을 표현한 식에 따라, 개별 확률과 함께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P_1 = \Pr(I_1 = 0) = \Pr(I_1^* \leq 0)$$

$$= \Pr(\epsilon_1 \leq -Z_1\gamma_1 - K\delta_1)$$

$$= 1 - F(Z_1\gamma_1 + K\delta_1)$$

$$P_2 = \Pr(I_2 = 0) = \Pr(I_1^* > 0, I_2^* \leq 0)$$

$$= \Pr(\epsilon_1 > -Z_1\gamma_1 - K\delta_1, \epsilon_2 \leq -Z_2\gamma_2 - K\delta_2)$$

$$= G(Z_1\gamma_1 + K\delta_1, -Z_2\gamma_2 - K\delta_2; \rho)$$

$$P_3 = \Pr(I_2 = 1) = \Pr(I_1^* > 0, I_2^* > 0)$$

$$= \Pr(\epsilon_1 > -Z_1\gamma_1 - K\delta_1, \epsilon_2 > -Z_2\gamma_2 - K\delta_2)$$

$$= G(Z_1\gamma_1 + K\delta_1, Z_2\gamma_2 + K\delta_2; \rho)$$

여기에서 $F(\cdot)$ 과 $G(\cdot)$ 는 표준화된 단일변량(univariate)와 이변량(bivariate) 정규분포함수(normal distribution function)이다. 분석에서 사용될 표본은 아래와 같이 독립적인 세 가지의 부표본(subsample)¹⁾으로 구성된다.

1) 부표본은 S_1 (미취업, 정규직), S_2 (미취업, 비정규직), S_3 (취업, 정규직), S_4 (미취업, 비정규직) 등 네 가

S_1 ; 미취업

S_2 ; 취업이면서 정규직

S_3 ; 취업이면서 비정규직

전체 표본에 대한 우도함수(likelihood function)는 아래와 같은 형식을 취한다.

$$L = \prod_{s1} [1 - F(Z_1\gamma_1 + K\delta_1)] \cdot \prod_{s2} G(Z_1\gamma_1 + K\delta_1, -Z_2\gamma_2 - K\delta_2; \rho) \cdot \prod_{s3} G(Z_1\gamma_1 + K\delta_1, Z_2\gamma_2 + K\delta_2; \rho)$$

이 모형의 추정 가능한 모수(parameters)는 $\gamma_1, \gamma_2, \delta_1, \delta_2, \rho$ 인데, 위 식의 극대화 문제를 풀면 $\hat{\gamma}_1, \hat{\gamma}_2, \hat{\delta}_1, \hat{\delta}_2, \hat{\rho}$ 과 일치하는 추정치를 구할 수 있다²⁾.

취업선택은 미관측된 잠재변수(unobserved latent variable)에 의해 결정되고, 잠재변수는 가계소득(여기서는 부모소득에 국한)을 포함한 개인의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 진학선택 결정방정식 또한 미관측된 잠재변수에 의해 결정되며, 진학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가계소득을 포함한 개인의 특성과 취업 또는 구직활동을 포기하고 진학을 선택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미관측된 요인을 고려하여 진학 선택과, 미진학 후 구직활동, 취업, 진학 이외의 비경제활동 등에 의해 결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1차 조사 때부터 꾸준히 조사가 이루어진 기존 패널에 해당하는 2,541명 중에서 1차년도 조사 자료에 부모의 학력변수가 있고, 11차 조사 자료에도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일반계고 졸업자 989명을 대상으로 부모의 학력수준이 자녀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기초통계를 보면, 취업을 위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는 1순위로 전공(28.0%), 출신대학(16.6%), 자격증(15.7%), 취업경력(13.3%)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고의 경우, 전체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전문계고의 경우, 전공(23.9%), 자격증(18.4%), 취업경력(17.2%) 등의 순으로 전체와 일반고에 비해 순위가 조금은 상이하게 나타났다. 2순위에서는 자격증(20.0%), 취업경력(14.8%), 전공(12.9%)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문계고에서는 전체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일반계고의 경우, 자격증, 전공, 취업경력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로 구성될 수 있으나, 분석의 초점이 부모학력에 따른 취업의 경험 여부와 종사상 지위와의 연관관계에 맞추어져 있으므로 미취업의 부표본은 분석 대상 표본에서 하나의 범주로 묶어서 제시하였음

2) 이변량 프로빗 순차적 모형(bivariate probit sequential model)을 기초로 한 우도함수임

〈표 2〉 취업을 위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

구분	1순위			2순위		
	전체	전문계고	일반고	전체	전문계고	일반고
결측치	24 (0.94)	11 (0.91)	13 (0.98)	24 (0.94)	11 (0.91)	13 (0.98)
출신대학	422 (16.61)	166 (13.73)	256 (19.22)	159 (6.26)	71 (5.87)	88 (6.61)
전공	711 (27.98)	289 (23.90)	422 (31.68)	328 (12.91)	150 (12.41)	178 (13.36)
학업성적	107 (4.21)	50 (4.14)	57 (4.28)	161 (6.34)	64 (5.29)	97 (7.28)
자격증	399 (15.70)	223 (18.44)	176 (13.21)	507 (19.95)	268 (22.17)	239 (17.94)
외국어	145 (5.71)	61 (5.05)	84 (6.31)	273 (10.74)	98 (8.11)	175 (13.14)
해외연수	7 (0.28)	3 (0.25)	4 (0.30)	22 (0.87)	10 (0.83)	12 (0.90)
인턴	26 (1.02)	6 (0.50)	20 (1.50)	52 (2.05)	18 (1.49)	34 (2.55)
취업경력	340 (13.38)	208 (17.20)	132 (9.91)	376 (14.80)	202 (16.71)	174 (13.06)
입사시험(면접·필기)	111 (4.37)	37 (3.06)	74 (5.56)	179 (7.04)	67 (5.54)	112 (8.41)
인맥	138 (5.43)	89 (7.36)	49 (3.68)	213 (8.38)	120 (9.93)	93 (6.98)
신체조건 및 외모	27 (1.06)	14 (1.16)	13 (0.98)	73 (2.87)	42 (3.47)	31 (2.33)
입상경력(공모전, 논문경진대회 등)	7 (0.28)	4 (0.33)	3 (0.23)	35 (1.38)	9 (0.74)	26 (1.95)
기타	77 (3.03)	48 (3.97)	29 (2.18)	68 (2.68)	35 (2.89)	33 (2.48)
합계	2,541 (100.00)	1,209 (100.00)	1,332 (100.00)	2,541 (100.00)	1,209 (100.00)	1,332 (100.00)

자료: 한국교육고용패널(1차, 11차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대부분의 청소년이 그러하듯이 장래 희망직업 결정 여부를 살펴본 결과, 아직 결정하지 못한 응답자가 69.1%, 결정한 응답자 비중이 30.5%로 나타났다. 고교 특성별로 구분하여 장래 희망직업 결정 여부를 살펴보면, 전문계고의 경우, 아직 결정하지 못한 비중이 24.2%로 나타나 일반계고의 36.2%보다 낮게 나타나 의외의 결과를 보였다. 일반적으로 전문계고교는 우선 취업을 목적으로 교육과정이 설계되어 있고, 취업 예정 분야가 미리 정해지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 진학보다 취업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본 분석에서는 일반계에서 장래 희망직업을 결정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표 3〉 장래 희망직업 결정 여부

구분	전체	전문계고	일반계고
결측치	9 (0.36)	2 (0.16)	7 (0.53)
예	776 (30.54)	293 (24.23)	483 (36.26)
아니오	1,756 (69.11)	914 (75.60)	842 (63.21)
합계	2,541 (100.00)	1,209 (100.00)	1,332 (100.00)

자료: 한국교육고용패널(1차, 11차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자격증 취득여부는 전체에서 5.5%가 취득했다고 응답했으며, 전문계고가 3.7%, 일반계고가 7.2%로 나타나 일반계고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률이 높게 나타났다.

〈표 4〉 자격증 취득여부(2003. 7~2004. 6)

구분	전체	전문계고	일반계고
결측치	4 (0.16)	1 (0.08)	3 (0.23)
예	141 (5.55)	45 (3.72)	96 (7.21)
아니오	2,396 (94.29)	1,163 (96.20)	1,233 (92.57)
합계	2,541 (100.00)	1,209 (100.00)	1,332 (100.00)

자료: 한국교육고용패널(1차, 11차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취득한 자격증 개수도 1개를 취득한 비중이 4.2%이며, 이 또한 일반계 고교가 5.4%로 전문계 고교 3.0%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5〉 취득한 자격증 개수(2003. 7~2004. 6)

구분	전체	전문계고	일반계고
결측치	2,400 (94.45)	1,164 (96.28)	1,236 (92.79)
1개	109 (4.29)	37 (3.06)	72 (5.41)
2개	23 (0.91)	4 (0.33)	19 (1.43)
3개	8 (0.31)	3 (0.25)	5 (0.38)
4개	1 (0.04)	1 (0.08)	-
합계	2,541 (100.00)	1,209 (100.00)	1,332 (100.00)

자료: 한국교육고용패널(1차, 11차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모의 학력을 보면, 아버지의 경우, 전체에서 고등학교가 49.1%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 17.9%, 4년제 대학 14.9%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계고의 경우, 고등학교 48.4%, 중학교 25.4%, 초등학교 14.9% 순으로 나타났고, 일반계고의 경우, 고등학교 49.8%, 4년제 대학 22.2%, 중학교 11.1% 등의 순으로 나타나 일반계고 아버지의 학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경우에도 아버지와 그 순서는 유사하게 나타났다.

〈표 6〉 부모의 학력

구분	아버지			어머니		
	전체	전문계고	일반계고	전체	전문계고	일반계고
결측치	6 (0.17)	1 (0.06)	5 (0.27)	6 (0.17)	2 (0.12)	4 (0.21)
무학	14 (0.40)	13 (0.78)	1 (0.05)	25 (0.69)	23 (1.32)	2 (0.11)
초등학교	344 (9.88)	249 (14.97)	95 (5.22)	425 (11.79)	300 (17.20)	125 (6.71)
중학교	626 (17.98)	423 (25.44)	203 (11.16)	880 (24.40)	562 (32.22)	318 (17.08)
고등학교	1,711 (49.14)	805 (48.41)	906 (49.81)	1,921 (53.27)	788 (45.18)	1,133 (60.85)
2~3년제 대학	147 (4.22)	42 (2.53)	105 (5.77)	85 (2.36)	19 (1.09)	66 (3.54)
4년제 대학	519 (14.91)	114 (6.86)	405 (22.26)	242 (6.71)	46 (2.64)	196 (10.53)
대학원(석사)	90 (2.58)	13 (0.78)	77 (4.23)	18 (0.50)	4 (0.23)	14 (0.75)
대학원(박사)	25 (0.72)	3 (0.18)	22 (1.21)	4 (0.11)		4 (0.21)
합계	3,482 (100.00)	1,663 (100.00)	1,819 (100.00)	3,606 (100.00)	1,744 (100.00)	1,862 (100.00)

주: 1차년도에서 조사된 부모의 학력수준으로 부모님이 계시지 않은 경우는 포함시키지 않음

자료: 한국교육고용패널(1차, 11차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4. 분석 결과

과거 부모세대의 경우 주로 발전연대기에 경제활동을 하면서 학력수준에 따른 종사상지위와 소득에 크게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들은 학력이 사회적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녀세대에게 사회적 성공을 위해 끊임없이 공부와 대학진학을 강조했다. 따라서 부모의 학력수준은 가구의 경제적 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자녀의 공교육과 사교육에 대한 투자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시 자녀의 높은 학력수준으로 연계되고 보다 나은 일자리로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정확한 분석을 위해 자녀의 인구학적, 사회학적 변수들을 통제해야 하겠지만 본 연구의 목적이 부모의 학력과 자녀의 학력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아니기에 간단한 빈도를 통해 살펴본다.

부모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학력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학력수준이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보일 경우, 자녀의 4년제 대학 졸업자의 비율은 70.3%로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아버지의 59.3%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어머니의 학력에서도 전문대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부모의 자녀 중에 4년제 대학을 졸업하는 비율은 70.5%로 고졸이하의 학력을 가진 어머니의 61.6%의 자녀만이 4년제 대학을 졸업하여 역시 어머니의 학력수준과 자녀의 학력수준과 관련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7〉 부모의 학력수준별 자녀의 학력수준

구분	아버지		어머니		합계
	고졸이하	전문대졸이상	고졸이하	전문대졸이상	
고졸	69 (11.62)	28 (9.03)	83 (10.99)	14 (9.40)	97 (10.73)
전문대졸	143 (24.07)	46 (14.84)	168 (22.25)	21 (14.09)	189 (20.91)
4년제대졸	352 (59.26)	218 (70.32)	465 (61.59)	105 (70.47)	570 (63.05)
대학원졸	30 (5.05)	18 (5.81)	39 (5.17)	9 (6.04)	48 (5.31)
합계	594 (100.00)	310 (100.00)	755 (100.00)	149 (100.00)	904 (100.00)

자료: 한국교육고용패널(1차, 11차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모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일자리 질을 살펴보기 위해 자녀의 정규직 여부 및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본다. 먼저 부모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정규직 비율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아버지의 학력수준이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보일 경우 자녀가 정규직인 비율이 85.5% 비정규직의 비율이 14.5%인 반면 아버지의 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 자녀가 정규직인 비율은 81.2%, 비정규직인 비율은 18.8%로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정규직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학력이 전문대졸이상일 경우 자녀가 정규직인 비율은 86.1%, 비정규직인 비율은 13.9%, 반면 어머니가 고졸이하의 학력을 가졌을 경우 82.0%의 자녀가 정규직, 17.9%가 비정규직으로 역시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정규직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8〉 부모의 학력수준별 자녀의 정규직 여부

구분	아버지		어머니		합계
	고졸이하	전문대졸이상	고졸이하	전문대졸이상	
정규직	484 (81.21)	272 (85.53)	626 (82.04)	130 (86.09)	756 (82.71)
비정규직	112 (18.79)	46 (14.47)	137 (17.96)	21 (13.91)	158 (17.29)
합계	596 (100.00)	318 (100.00)	763 (100.00)	151 (100.00)	914 (100.00)

자료: 한국교육고용패널(1차, 11차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분석결과, 자녀의 학력에 아버지의 학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지만 자녀의 정규직 여부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했다. 또한 $\rho=0$ 에 대한 LR test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기각하지 못해 이변량 프로빗 사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프로빗 분석을 실시한 결과 역시 부모의 학력수준은 자녀의 정규직 결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표 9〉 일반계고등학교 졸업자의 정규직 결정요인(모형1)

변수	이변량프로빗		프로빗
	자녀학력	자녀정규직여부	
성별 (남=1)	-0.220** [0.0924]	0.469*** [0.107]	0.476*** [0.106]
아버지 학력 (전문대졸이상=1)	0.305*** [0.107]	0.163 [0.127]	0.166 [0.127]
어머니 학력 (전문대졸이상=1)	0.156 [0.140]	0.127 [0.169]	0.126 [0.169]
자격증 (유=1)		-0.335 [0.206]	-0.358* [0.206]
상수항	0.487*** [0.0752]	0.721*** [0.0817]	0.718*** [0.0816]
athrho	-0.107 [0.0712]		
rho	rho=-0.1065 LR test rho=0: prob>chi2=0.1331		Prob > chi2 = 0.0000
관측치	843	843	843

주: ***, **, *는 1, 5, 10% 유의수준을 의미함

두 번째 모형에서는 일반계고교 졸업자뿐만 아니라 전문계고 졸업자에 대해서도 부모의 학력이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버지의 학력이 자녀의 학력에는 유의하게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규직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rho=0에 대한 LR test 결과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 rho=0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이변량 프로빗 사용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전체 고등학교 졸업자의 정규직결정요인(모형2)

변수	자녀학력	자녀정규직여부
성별 (남=1)	-0.112 (0.07)	0.238*** (0.08)
BYSCCLASS	0.483*** (0.02)	-0.040 (0.03)
아버지 학력 (전문대졸이상=1)	0.284*** (0.08)	0.083 (0.09)
어머니 학력 (전문대졸이상=1)	0.107 (0.11)	0.112 (0.12)
자격증 (유=1)		-0.246 (0.17)
상수항	-1.011*** (0.07)	0.973*** (0.07)
athrho	-0.099 (0.05)	-1.82
rho	rho=-0.099 LR test rho=0: prob>chi2=0.0684	
관측치	1,613	

주: ***, **, *는 1, 5, 10% 유의수준을 의미함

5. 결론

한국 사회의 교육열을 서양적 의미의 선호로 간주하기에는 여러 가지 난점이 있다. 한국인 누구에게나 교육은 여러 가지 선택 대상중의 하나가 아니라 다른 모든 대안을 압도하는 절대적 재화이다. 그래서 조기 취직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이 언제나 우월한 선택이 된다. 현 시점에서 우리의 교육열은 자식이 향후에 누리게 될 사회경제적 가치를 목표로 하는 지극히 계산적인 투자이다. 대학서열에 의존해 거의 불확실성 없이 예측되는 학벌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겨냥해 수행되는 가장 확실한 투자가 바로 교육 수요이다. 그것은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보다 훨씬 수익성과 확률이 높은 투자인 것이다(홍훈, 2004).

우리 사회에서 학력에 대한 맹종과 학벌에 대한 추종은 사회적 불평등과 소외를 낳고, 대학교육의 공동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중등교육을 황폐화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한국의 학력과 학벌은 선진 외국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없는 교육수준의 기계적인 우열과 획일화된 대학 서열에 의존하고 있기도 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률과 실업률은 점차 회복되고 있지만, 빈곤율은 크게 낮아지고 있지 않다. 최근 실업률이 안정적임에도 불구하고

빈곤률이 낮아지지 않는 것은 일자리 양극화 진전으로 인해 일을 하고 있음에도 충분한 소득을 얻을 수 없거나 또는 고용이 불안하여 취업과 실직을 반복하는 임시·일용직 및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등 근로를 하면서도 빈곤층에 머무르는 불안정 고용층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실증분석을 통해 부모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정규직 비율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하였고, 자녀의 정규직 여부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했지만, 자녀의 학력에 대해 아버지의 학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학력이 자녀의 학력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자녀의 좋은 일자리에는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었다. 이는 단순히 학력만 올렸다고 해서 좋은 일자리를 얻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최근의 경제상황은 저성장이 보편화되는 추세로 가면서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은 점차 심화되면서 청년실업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직무능력표준 등을 기반으로 한 직무능력을 강화하여 진정한 직무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분석결과, 부모학력이 자녀학력에 일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세대의 교육수혜 정도가 다음 세대의 노동시장 진입에 일정부분 기능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다만, 취업시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종사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부모세대의 학력이 자녀세대의 노동시장 진입에 영향을 주고 있어 부모세대에서 교육과 관련하여 격차가 존재한다면 자녀세대에게까지 그 영향이 미쳐 격차가 지속될 수 있다는 것으로 교육환경의 대물림이 격차온존의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위해 직무중심, 능력중심의 채용과 인력관리와 더불어 개인의 직무능력개발과 향상을 위한 다양한 양성 및 향상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제도를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두 가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일부 밝혀졌지만 부모의 학력을 포함한 외적환경이 개인의 교육 및 노동시장 선택권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즉, 개인의 노력으로 해소될 수 있는 불평등이 있는 반면 통제할 수 없는 외적환경이 개인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외적환경을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로 규정하고 운영함으로써 기존 체제에 따른 불공정과 왜곡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일정부분 부모세대의 영향이 미치는 부분이 있으나 보다 세부적이고, 실제적인 선택의 요소까지 들어가면 그 이상의 영향은 없다는 사실이다. 즉, 부모의 학력이 취업에 대해서는 일부 영향을 미치나 취업의 내용에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다음세대에서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한다면 보다 개선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분석에 활용한 자료는 학력변수를 활용할 수 있는 한국교육고용패널 1~3차 및 11차 자료이다. 그 간의 동적인 변화를 상세하게 확인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동태적 변화를 모두 고려해야 세대 간의 영향정도와

학력이 기능하는 과정을 제대로 볼 수 있다. 향후 원자료 생성 및 가공 과정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노동시장 진입 후 다양한 변화를 체계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종사상 지위라는 변수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만 구분하였으나 다양한 종사상 형태가 있고, 임금, 노동시장 이동 등 측정과 비교가 가능한 많은 변수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분석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고제이 외(2011), 『아버지의 학력과 아들의 성취』, 재정학연구, 한국재정학회, 제4권2호
- 김재호(2014), 『중고령자의 생애 주된 일자리의 노동시장 상태가 빈곤결정에 미치는 효과』, 사회보장연구, 한국사회보장학회
- 김진영 외(2014), 『부모 학력에 따른 학업성취도 격차의 국제비교』, 재정학연구, 한국재정학회, 제7권2호
- 김태호(2012), 『한국 사회의 학력과 계급 재생산-대학교육의 의미 변화와 사회구조적 파장』, 한국사회학회 후기사회학대회
- 김한양 외(2011), 『소외계층 학생의 교육권 강화를 위한 연구-미국교육격차해소법을 중심으로』, 미국헌법연구, 제22권2호
- 남인순(2011), 『학력사회와 한국교육의 모순』, 사회이론, 한국사회이론학회, 제40권
- 서보건(2011),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일본의 법 제도』, 세계헌법연구, 제17권3호
- 윤기찬 외(2015), 『인구규모에 따른 지역 간 교육격차 및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CIPP 모형의 적용』, 지방정부연구, 제18권4호
- 이중섭 외(2011), 『부모의 학력이 청소년 자녀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한국가족복지학회, 제16권1호
- 조우현(2004), 『아버지 학력과 노동시장 불평등』, 노동경제논집, 한국노동경제학회, 제27권2호
- 황성수 외(2015), 『부모소득이 청년취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특성화고 졸업자를 중심으로』, 제10회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 홍훈(2004), 『학력, 학벌의 사회경제적 가치』, 한국사회의 학벌과 대학교육 세미나 자료집,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5), 『한국교육고용패널 기초분석보고서 1차년도 자료 분석』

투고일자 : 2016. 12. 02

수정일자 : 2016. 12. 26

게재일자 : 2016. 12. 30

<국문초록>

격차해소를 위한 기제로서의 교육의 역할 분석

- 부모학력이 자녀취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중심으로 -

이상직 · 김철희 · 이인화

격차는 다양한 경제사회문화적 요소로 발생한다. 한국사회에서의 교육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서 기능해 왔다. 본 논문에서는 부모의 학력이 자녀의 학력과 취업 지위 특히,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봄으로써 세대 간 격차이전에 교육이수 정도가 기능하는 정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부모학력이 자녀학력에 일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세대의 교육수혜 정도가 다음 세대의 노동시장 진입에 일정부분 기능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다만, 취업시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종사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부모세대의 학력이 자녀세대의 노동시장 진입에 영향을 주고 있어 부모세대에서 교육과 관련하여 격차가 존재한다면 자녀세대에까지 그 영향이 미쳐 격차가 지속될 수 있다는 것으로 교육환경의 대물림이 격차온존의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위해 직무중심, 능력중심의 채용과 인력관리와 더불어 개인의 직무능력개발과 향상을 위한 다양한 양성 및 향상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제도를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격차해소, 교육격차, 부모학력, 취업, 종사상 지위

